

다시 찾는 연대의 힘...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희망 전해

광주 자원봉사자 45명...의성 불린투어 활동 피해 현장 잔재물 제거·김치·딸기잼 나눔 등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1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다시 찾는 연대의 힘' 불린투어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불린투어는 2025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활동으로, 광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과 생활지원을 병행하는 연대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활동에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 총 45명이 참여하며, 오전 6시 광주를 출

발해 경북 의성군 단촌면 일대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활동으로는 산불 피해 현장 잔재물 제거, 모듈주택 화단 꽃 심기, 광주김치와 딸기잼 나눔 등이 진행된다. 특히 임시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활동이 함께 이뤄져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사활동 이후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탐방과 탐춘공연 관람이 진행되

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인문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류미수 센터장은 "이번 불린투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간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에도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 활동과 김치 나눔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간 협력과 연대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1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다시 찾는 연대의 힘' 불린투어 활동을 추진했다.

광주 광산경찰-호남대, 교통사고·범죄피해 예방 '앞장'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등 이용수칙 준수 홍보 활동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시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등 꼭 지켜주세요."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30분 호남대 정문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광산구경, 호남대학교와 함께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탑승 금지, 원동기 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 음주운전 금지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자 대상 안전모 씌워주기 등 이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서 각 부서가 함께 참여했으며, 청소년보호계는 마약류 이용성범죄 예방 및 성폭력 예방을, 범죄예방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30분 호남대 정문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광산구경, 호남대학교와 함께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계는 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홍보를, 외사정보계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이오피스 및 환치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각 부서가 협력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인 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동 전개와 더불어 경찰서 모

든 부서가 협력해 재학생 및 외국 유학생 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고수연 교수 '새장은 원래 없었다' 출간

반복되는 '정체성 루프' 탈피 방법 제시

리더십컨설턴트 고수연 교수(나주대 글로벌이민행정복지학과 학과장·사진)가 첫 자기계발서 '새장은 원래 없었다'(호이테북스 刊)를 최근 펴냈다.

'사람은 왜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가두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 계발서는 반복되는 생각과 해석이 개인의 삶을 제한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정체성 루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오랜 코칭, 상담과 임상,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 경험자를 쌓으면서 다음의 작동 원리를 분석해왔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을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뇌·마음·영성을 통합한 자기 창조 시스템인 'The Inner Brain Code™'를 창설하고, D·R·C(Decode-Recode-Create) 모델과 정렬·귀환 훈련을 정립함으로써 반복되는 사고를 바꾸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부 '정렬'에서는 몸과 호흡을 통해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연습을 한다. 2부 '해독'에서는 자신을 제한하던 생각의 틀을 인식하고 바꾸는 과정을 다룬다. 3부 '귀환과 창조'에서는 3분 루틴과 새기기, 먼저 보기를 바탕으로 관점의 전환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우리는 속도를 찬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빨리 뛰고자 해서 이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뇌신경계, 마음, 영성을 관통하는 존재의 고유한 정렬 상태를 뜻한다"고 밝혔다.

고수연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양농협, 다문화가정 희망장학금 400만원 전달

학생 8명 50만원씩...안정적 학업 환경조성·교육비 부담 경감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은 최근 '다문화가정 희망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8명의 학생들에게 인당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조성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허순구 조합장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농협의 중추적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

업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농협은 이밖에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분야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광양농협은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인 지원과 점검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hkkjin@gwangnam.co.kr



광양농협은 최근 '다문화가정 희망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8명의 학생들에게 인당 50만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했다.

광주시, 금융취약계층 생활안정 현장상담

광주시는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합 지원 이동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이동상담은 중동전철 등에 따른 물가 상승·가계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상담에는 광주 금융복지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전라제주본부 북광주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북구가족센터, 광주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네



일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은 채무조정, 서민금융, 고용,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통합 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 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 무료지

원 062-369-4009.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레인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은세 (음력 2월 28일)

- | | | | | | | | | | | | |
|---|--|---|---|--|---|--|---|---|---|---|---|
| 48년생 뒤돌아보는 것이 소니라
60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뒤돌아 없다
72년생 원거리 출점은 삼가라
84년생 지금이 문서 거래 좋은 기회라
96년생 가능성이 높추하다 | 51년생 과정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
63년생 촉박하게 일 하지 말고 소리대로 하라
75년생 거래처 문제가 우연히 해결 될 것이다
87년생 삼가지 않으면 사면초가에 놓인다
99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마음 또한 깊은 법 | 54년생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66년생 전전긍긍하는 형태이다
78년생 주위사람에게 사기 당할 우려가 있다
90년생 발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 57년생 배우자와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69년생 귀하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
81년생 집안 일 행운이 들어올 것이다
93년생 이체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다 | 49년생 갈수록 길조가 비추는 동량이다
61년생 도움 받을 지인이 있는 행운아
73년생 근기가 확실하면 실행해도 무리 없다
85년생 하늘에 뜻이 곳 귀하의 뜻
97년생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라 | 52년생 고된스러운 일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64년생 부담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76년생 객지에서 돌아갈 때를 기억할 수 없다
88년생 견문을 확대 시키는 좋은 계기 | 55년생 상대방이 귀하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
67년생 유언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
79년생 형식과 체계를 중시해야하는 시점
91년생 그 자체로서의 의미에 만족하라 | 58년생 여행은과 국외로 나갈 운이 많다
70년생 대범하게 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82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94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 | 50년생 치라이나 도로상에서 조심하라
62년생 간신이 물러가고 바른 정치가 되는 경
74년생 약간의 클레임이 결렬 가능성이 있다
86년생 정도만 지킬수 있다면 문제 없다
98년생 손을 대봤자 실증만 남을 뿐이다 | 53년생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라
65년생 부당한 거래에 좋은 운
77년생 자녀로 인한 근심수가 있을 것이다
89년생 당해 보면 알 수 있다 | 56년생 금전 손해 보게 되니 앞서 가지 말라
68년생 집 장만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80년생 예정시에 가는 일을 삼가 할 것
92년생 중심을 잡아야 문제가 수습 된다 | 59년생 노파심 버리고 잠자코 있으면 될 것
71년생 약간의 손해가 훗날 큰 이익이 된다
83년생 안 되는 것을 강행하면 무리가 따른다
95년생 늦지 않았으니 배워두고 보자 |
|---|--|---|---|--|---|--|---|---|---|---|---|